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노동운동 이틀학교

2015년 8월 15일(토) - 16일(일)

장소: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 3층 가천홀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주최: 노동자연대 | 참가비: 20,000원 (이틀) |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지배자들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지배자들의 긴축 강요에 맞서 선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적인 노동자들도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세계적으로 젊고 활력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수년 동안 지배자들의 공세에 비해 노동운동의 대응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도 흔했습니다. 최근에도 노동자들의 높은 불만 속에 투쟁이 벌어지는 한편 그 투쟁이 기대만큼 전진하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고, 투쟁을 전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투적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깊이 토론하고자 “노동운동 이틀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노동운동의 현 상황으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문들과 전략 논의들을 살펴보고, 진정한 대안에 대해서도 토론하고자 합니다. 전투적인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노동운동 이틀학교



8월 15일 (토) 오후 1시 ~ 7시

- 한국 노동계급의 조건과 그를 둘러싼 쟁점들
—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으로 보기

연사: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 건설

연사: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과 운동

연사: 박설 <노동자 연대> 기자, 조명지 노동자연대 활동가

8월 16일 (일) 오후 12시 ~ 7시

-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쟁점들

연사: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 노동운동 전략 논의들을 살펴본다
— 사회연대, 연대임금, 사회적 합의 등

연사: 이정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김문성 <노동자 연대> 기자

-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연사: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갈무리] 2015 노동자 투쟁,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 workersolidarity.org에 자세한 시간표를 추후 공지합니다.

